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1-5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도 없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압으로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창조주 이시다. 넷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I.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 할 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1).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는가? 말은 누군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예수님이 계시의 수단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 준다는 의미이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인데 알려 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1-2a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 주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18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고 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 주시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 하시는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II.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다는 사실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다.

1. 그가 존재하신 때 (The Time of His Existence)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나온 태초와 같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 되기 이전에 우주의 역사가 시작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 그 존재의 본질(The Essence of His Identity)

1절 끝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요한복음 20:28).”

요한복음 10:33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주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3. 하나님과의 관계

1절의 중반 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했다.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존재하신 때와 그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III.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다.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신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모슬렘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아리안주의에서 유래된(이들은 4세기부터 나온 고대의 이단이다.)이단들은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창조 되었다. 그는 존재 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창조 되었고 가장 높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이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하

지만 요한은 3절에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이다.

IV.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4-5).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한다. 즉 말씀 안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생명이 있었다. 이것은 세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함축 되었다.

1. 예수님은 살아 있는 인격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창세기 1:26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과 신적인 인격을 가지셨다.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다.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무신론자들은 만물의 근원은 생명이 없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비인격적인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뜻이다. 수십 억년동안 창조자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고, 생명도 없는 뒤죽 박죽한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살아 있는 인격체라고 불리우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된 엉터리 논리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었다고 말한다. 나의 생명이 비 인격적인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것인가? 나의 생명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생물학적 부모가 진짜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부모이다. 어려서 입양이 되어 양부모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생물학적 부모를 찾는 것을 뿌리를 찾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부모요 나의 참 뿌리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다.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고 기록했을 때 요한이 여기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받은 생명, 영생을 의미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한복음 5:24).

요한일서 5:12을 보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1: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말은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그 생명을 의미한다.

3.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다.

1:4에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다. 여기서 생명이 빛이라면 죽음은 어둠을 말한다. 5절에서 빛과 어둠이 잘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katalambano)” 깨닫지 못하더라(katalambano)라는 헬라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이기지 못한다(ESV, NIV, NASB 의 번역)”는 의미와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KJV 번역)”라는 뜻이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라고 외쳐도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 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도와 주어야한다.

둘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승리의 쾌재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송두리체 부셔 버리셨다. 이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긴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